‘핫’ 한 유통가…찜통더위에 ‘몰캉스’족 몰린다

더위 피해 백화점·대형마트 북적…다양한 프로모션에 매출 급증

롯데백화점 광주점 9월까지 ‘요이츠’ 팝업…여성패션 매출 40%↑

지난 주말 광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 속 시원한 유통업체를 찾는 지역민, 이른바 ‘몰캉스족’(쇼핑몰+바캉스)이 증가한 데다 지역 유통업계들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등을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주말(28~29일)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 신장했다.

특히 본관과 플레이스팟에서 골고루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는데, 패션 매출은 골프와 가성비 의류(컨템포러리)를 중심으로 3.9% 올랐다. 특히 플레이스팟에서는 스포츠·아웃도어, 영이지캐쥬얼, 아동, 잡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4%나 매출이 뛰었다.

매출 신장폭이 컸던 것은 무더위를 피해 백화점을 방문한 지역민이 늘었고, 광주신세계가 최근 레인부츠, 스니커즈, 아웃도어 의류, SS상품 시즌오프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총 매출은 1년 전보다 5% 신장했다. 특히 여성패션과 액세서리 매출이 각각 40%, 35%나 올랐고,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도 10% 신장률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요이츠’ 팝업 행사를 통한 여성 의류 할인 등 브랜드별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이 지역민 방문 증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무더위를 피한 고객들의 방문 증가로 마트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난 주말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올랐고, 델리식품 매출도 11%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과일류 매출이 전년 동기에 견줘 50%, 축산은 60%나 뛰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한우 전품목’과 ‘유명산지 수박 전품목’ 등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한다. 지난 주말 롯데마트의 매출 신장폭이 컸던 것 역시 무더위를 피해 마트를 찾은 지역민 증가와 먹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는 단순 ‘장보기’ 장소가 아닌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가능한 복합생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무더위에 쇼핑과 더불어 온 가족이 방문해 영화도 보고, 아동 체험 프로그램 등도 경험하는 등 시간을 보내며 더위를 피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와우 프라이스’ 제품 만나보세요 광주신세계 ‘노매뉴얼’ 직원들이 특가에 한정수량 판매하는 ‘와우 프라이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4~10일 다양한 패션·잡화 브랜드에서 특가상품들을 최대 할인가에 판매하는 ‘와우 프라이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주차(4~10일) 이후 총 3주차에 걸쳐 진행되며, 매주 각 브랜드에서 새로운 특가상품을 구성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1년에 단 한번…롯데백화점 ‘와코루 균일가전’

13일까지 최대 6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부터 13일까지 4층 이벤트홀에서 ‘와코루 균일가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와코루 균일가전은 와코루의 인기 상품들을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로, 1년에 단 한번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1~2년차 이월상품들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행사 상품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 기획 상품들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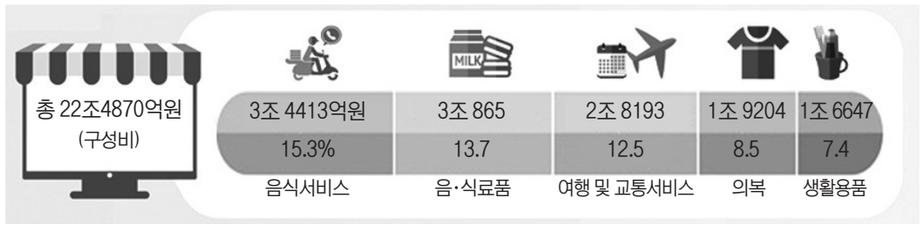
대표 제품으로 ‘와코루 플로럴 자수 브래지어 세트’, ‘쌀루트 풀컵 브래지어 세트’, ‘레이온 보더나염 이지웨어 원피스’ 등이 있다.

행사 기간 중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사은품도 제공한다.

지난해 열린 ‘와코루 균일가전’에 많은 지역민들이 방문해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김훈성 롯데백화점 광주점 패션팀장은 “언더웨어 브랜드 와코루의 인기 상품들을 연중 가장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행사”라며 “지난해보다 행사 상품 규모를 확대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온라인 쇼핑, 음식서비스·식료품이 견인



거래액 22조4870억원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 식료품 등의 온라인 거래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이쿠폰서비스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 4870억원으로 전년 동월(22조 2900억원) 대비 1970억원(0.9%)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 4월까지도 전월 대비 2.8% 성장했으나, 5월 들어 0.9%로 상승세가 꺾였다.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전년 동월(27.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14.2%), 음·식료품(5.6%), 농축수산물(9.4%) 등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를 견인했다. 배달플랫폼 사용 확산 및 식자재 등의 분야에서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 대신 온라인 장보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 4413억원으로 1년새 4269억원 증가했고,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각각 1647억원, 989억원 늘었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5143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47.1% 감소했다. 이쿠폰서비스는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10.5%), 스포츠·레저용품(-9.1%) 등도 전체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치킨 1마리 3480원…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

4~6일, 삼겹살 최대 60%…생필품·가공식품 반값 할인

이마트는 “4~6일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 국내산 냉장육으로 만든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한 마리 당 3480원에 선보인다. 이는 제품 출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1인 당 1마리만 구매할 수 있다.

수입 삼겹살·목심은 오는 5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890원으로 기존가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은 4~6일 60% 할인한다. 이는 연중 최저가 수준으로, 이마트는 고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160 t을 준비했다.

이마트는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이번 행사 기간 수박과 복숭아, 자두 등 과일과 전복, 민물장어, 오복물회 등 보양식도 특가에 선보인다.

또 가공식품 50종과 생필품 130여종은 최대 반값에 판매하고, 130여종의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라면 한 묶음도 기존 8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가격을 낮췄고, 아이스크림 바는 골라 담기 행사를 통해 개당 400원 이하에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도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트레이더스는 양념 LA식 갈비구이와 횟감용 연어필렛, 요거밀크, 제스프리 골드키위 등을 할인판매한다.

정양오 이마트 전략마케팅본부장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이 이마트의 강점인 압도적인 가격과 상품기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